

[무형문화유산 순방]

“장이야 군이야”, 장기판 일만수에 세월이 간다

—길림성 성급 무형문화유산 조선족장기 전승인 조롱하



어린 소학생들에게 장기의 기본인 장기레절부터 가르치고 있다.

에헤 ~ 상투박이 저 로인네
뚜각때각 장기판 둔다네
장이야 군이야 장 받아라
상이 뜨면 또 떨어진다
얼씨구 지화자 좋다
절씨구 두어야 장기지
얼샤 장군을 받아라
옛다 명군이 아니냐
대명천지 밝은 날에
긴 담배대 결들여 물고
에 장기판 일만수에 세월이 간다...

길림성 성급 무형문화유산 조선족장기 전승인인 조롱하(55세)씨는 길을 가다가도 장기판을 만나면 아버지가 예전에 장기를 두면서 흥얼거리곤 했던 〈장기타령〉이 떠오르면서 흥겨운 옛 추억이 되살아난다고 말한다.

고향이 화룡시 서성진 북대촌인 조롱하씨는 어릴 때부터 장기를 잘 두는 아버지한테서 장기를 배웠다. 아버지 조두만은 해마다 여름철 농한기면 열리곤 했던 춘운동대회와 향운동대회에서 항상 1, 2등을 다투던 장기고수였다. 그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조롱하씨도 현재 조선족장기 프로 6단으로 장기 실력이 만만치 않다.

장기는 전쟁태세를 모의하여 장안해낸, 지력과 지능 지혜를 키워주는 유익한 오락물로서 성격과 의지를 단련시켜주고 우정과 친선을 도모해준다. 전쟁에 있어서는 쌍방의 장비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장기는 동등한 기틀과 성으로 순순히 지능과 지력의 대결로 승패를 가늠한다. 이러한 점에서 장기는 건전한 전통적 민속오락물로, 지능스포츠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즐기는 오락의 일종이다.

조선족장기는 포진법이 다양하고 말들의 활동 범위가 넓고도 대체로워진지한 흥취를 자아내는바 예나 지금이나 남녀로소 불문하고 대중적으로 널리 보급되고 있다.

“과거 농촌에서 여름철이면 시원한 나무그늘 아래서 장기를 두는 사람들의 모습이 조롱하씨의 눈에 자주 들어왔다. 조롱하씨가 살고 있는 연길시 공신의 한 두부방 근처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시장철 모아서 장기를 두는 열성 장기군들이 많았다. 일주 20여명이나 되었는데 활동 장소도 없고 소속된 협회도 없는 아마추어들의 모임이었다. 거기에서 조롱하씨는 현재 연길시민속장기협회 부회장으로 있는 최준수를 비롯한 여러 장기군들과 면목을 익히면서 연길시조선족민속장기협회 공원분회 설립도 도왔고 장기군들이 겨울에도 추위에 떨지 않고 부담없이 장기를 둘 수 있도록 여러모로 뛰여다나하면서 실내 활동실도 마련해 주었다.

그동안 조롱하씨는 연길시조선족민속장기협회에 무상으로 활동사무실도 제공해주었고 2021년부터 지금까지 제7회 전국조선족장기 ‘기성쟁탈전’, 제3회 ‘회장컵’ 전국조선족장기시합을 비롯해 많은 전국, 주, 시급 조선족장기 경기들을 협찬하고 조직하는데 발벗고 나섰다. 이외에도 조선족장

기에 관한 고서적과 오래된 장기판, 장기쪽들도 수집했으며 신문이나 방송 등에서의 조선족장기 홍보에도 적극적이다.

2021년 12월, 조롱하씨는 연변조선족자치주조선족장기협회와 연길시조선족민속장기협회로부터 조선족장기사업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기여를 인정받아 길림성 무형문화유산 조선족장기 대표적 전승인과 전승인단체 책임자 권한을 부여받았다. 조선족장기 1대 전승인은 홍순보, 2대 전승인은 변태산, 3대 전승인은 홍성빈이다. 조롱하씨는 제4대 전승인인 셈이다. 현재 조롱하씨는 중국조선족장기연합회 부회장에 주조선족장기협회 명예



여가시간이면 장기군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장기 한판 두는 것이 조롱하씨의 일상이다.

회장, 연길시조선족민속장기협회 명예회장 등 많은 장기협회 관련 직무들도 겸직하면서 조선족장기의 활성화와 전승 발전을 위해 로심초시하고 있다.

“지금 연변의 조선족장기 상황을 살펴보면 장기고수들은 많지만 후대 양성이 문제입니다. 젊은 장기인재들의 단층이 심합니다. 장기는 점차 로명화 되여가고 그 뒤를 이을 젊은 장기인들이 적은 셈이지요.” 조롱하씨의 안타까운 말이다.

가끔은 10대 젊은 장기인들도 협회에 들어오고는 있지만 대부분은 협회에서 양성한 장기인들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어디까지나 극소수에 불과하다.

“장기쪽을 바르게 놓는 것은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장기쪽을 바르게 놓아야 사람의 마음도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화룡시신동소학교 민속장기양성반에서 조롱하씨는 어린 학생들에게 장기의 기본인 장기레절부터 가르치고 있었다. 장기를 대국할 때 장기쪽 선택에서도 붉은색 장기쪽은 나이가 든 이상분한테 양보하고 푸른색 장기쪽은 나이 어린 사람이 둔다고 가르친다. “약자 선수”라고 장기수가 낮은 사람에게 먼저 장기를 두게 하는 레법도 가르친다...

“장기는 지력 개발에 좋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마음가짐을 배우도록 합니다. 장기쪽을 똑바로 놓는 작은 습관은 물론 대국전에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손히 머리 숙여 인사할 줄 아는 등 장기는 얼핏 생각하면 간단히 오락 같지만 우리 민족의 우수한 레의법절

과 문화가 담겨져있지요. 또한 장기를 두면서 기다려주고 받아주는 사려깊은 도량과 겸손함,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지혜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소학생들의 장기 흥취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조롱하씨는 2022년도에 화룡시장기협회, 신동소학교와 손잡고 민속장기 전승기지를 설립했다. 장기교실을 내고도 장기시합도 조직하면서 후대 양성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에도 조롱하씨는 화룡시 소학생 및 중학생 조선족장기시합을 2차례 조직하면서 많은 장기애호가들을 양성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족민속장기의 전승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기여를 하였다.

조롱하씨의 주도로 연길시조선족민속장기협회에서는 청소년 양성부를 내오고 연길시연남소학교, 연길시 13중학교 등 여러 학교들에도 민속장기 양성기지를 세웠는데 이곳에서 양성된 학생들은 전국중소학생민속장기시합에서 좋은 성적들을 따내었다. 조롱하씨는 청소년 장기인재 양성과 보급에서 중소학생들은 물론 향후 연변대학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인재 양성 계획도 구상하고 있었다. 대학생들이 어린 소학생들에 비해 장기를 빨리 배우고 또 후대 양성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우점이 있기 때문이었다.

조롱하씨는 조선족장기는 역사가

민속장기시합도 조직하고 있다.

연변의 많은 장기고수들은 이 같은 차원 높은 장기시합들을 통해 교류하면서 부단히 기력을 높이고 있으며 세계적인 대회의 우승도 여러번 따냈다. 현재 연변에는 장기의 프로급 최고단수인 9단 자격을 가진 장기고수들만 해도 20여명이나 된다. 전국대회에서 4강에 3번 들게 되면 8단 자격을 가지게 되며 전국대회에서 1등을 3번 하면 9단 자격을 가진다. 16강에 3번 들면 4단 자격부터 주어지며 경기참가를 많이 하고 점수를 많이 따게 되면 중국조선족장기연합회에서 기록해서 단수를 확정짓게 된다고 한다.

조롱하씨는 전국의 여러 지역 장기협회들에 장기 실력이 강한 아마추어 장기고수들은 물론 국내외적으로도 실력을 인정받은 높은 프로급 회원들도 많기 때문에 장기 실력을 높이려면 아마추어 장기애호가들이 고급적 각지에 설립되어있는 장기협회에 가입하는 것이 조속히 장기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과 선택이라고 말한다.

온라인 시대 조선족장기의 전승과 보급을 위해 조롱하씨는 전국 및 세계대회 명품 장기경기 기보 2,400여개를 수록한 민속장기 기보사이트인 ‘기보나라’를 건립하는 데도 적극 지지해 나섰으며 최신 민속장기 온라인 앱을 개발하는 데도 협찬을 아끼지 않았다.

온라인으로도 장기를 즐길 수 있는 조이스톱(乐爆) 온라인 장기 게임 앱은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 휴대폰으로 유명 장기인들과 마주앉아 실전같은 장기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조롱하씨는 소개했다.

“장기는 마지막이나 화투, 골페, 트럼프 등 대중적 오락물과는 달리 물질적인 자국이 없이도 흥미가 진진한 고상한 스포츠입니다. 동시에 시종전투정신이 내포되어있어 신출귀몰하면서 더 무궁무진한 묘수가 속출되어 남녀로소 불문하고 즐길 수 있는 오락활동입니다. 어찌 보면 조그마한 장기판 속에 일만수의 묘수와 함께 우리 인생의 회로애락이 깃들어있지요. 우리의 선조들이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전승하고 발전시켜온 소중한 문화유산인 셈이지요.” 조롱하씨는 성급 무형문화유산 조선족장기 전승인으로서 계속해서 우리의 민속장기를 아끼고 전승하고 발전시켜나갈 책임과 사명에 늘 어깨가 무거워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3년 4월, 연변지역 장기협회 단합과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공헌을 하였고 민속장기 전승과 보급 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조롱하씨는 중국조선족장기연합회로부터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조선족장기에서 좋은 혼자이면 힘이 매우 약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취약한 줄도 서로 합종시켰을 때는 강하고 안하무인 격인 차, 포마저 함부로 압수이보지 못할 만큼 힘이 커지고 강해집니다.” 조롱하씨는 민속장기에서의 절의 특점을 빌어 우리의 민속장기도 서로가 합심하고 뭉칠 때 힘이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상근 김파 기자



오덕된장과 손잡고 펼친 조선족장기시합의 한 장면

[전망대]

이기형 감독 첫 상대는 5라운드 불패 상해가정회룡



지난 7월 20일, 연변팀은 훈장에서 남녕도시에 1대2로 패했다.

8월 18일 오후 7시에 연변룡정팀(이하 ‘연변팀’)은 연길시전민건강중심체육장에서 상해가정회룡팀과 중국축구 갑급리그 2024 시즌 제19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된다.

이번 경기는 리그 순위 9위와 13위의 갑급 사정권내 팀들 사이의 6점짜리 대결로 각별히 많은 축구팬들의 관심을 자아내는 경기이고 또 이기형 감독이 연변팀 사령탑을 잡고 지휘하는 첫 경기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국내 축구 언론들의 관심도가 비교적 높다.

먼저 두 팀의 최근 5라운드 경기를 돌아보면 상해가정회룡은 1승 4무로 7점을 벌여 21점을 기록하면서 12위로부터 9위로 상승했고 연변팀은 2무 3패로 2점을 쟁겨 18점을 기록, 10위로부터 13위로 추락하였다. 골 득실 차를 보면 상해가정회룡은 4득 2실이고 연변팀은 4득 12실로 현저한 격차를 보인다.

두 팀간의 강약 차이는 성적뿐이 아니다. 연변팀의 전법에 생소한 이번 콰드라도가 연변팀을 6경기째 지휘하였다면 상해가정회룡은 지난해 6월부터 감독에 부임된 양림이 변함없이 사령탑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거기에 이번 약 한달간의 리그 간헐기에도 상해가정회룡은 일주일만 휴식하고 집중훈련을 재개하였다는 점인데 8월 10일에 상해가정체육장에서 진행된 연습경기(热身赛)에서 석가장공부팀을 3:0으로 가법계 제압하면서 상해가정회룡의 실력이 한층 제고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변팀과의 이번 경기를 앞두고 상해가정회룡의 승산이 더 크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편 8월 5일에 부임한 연변팀 이기형 감독은 언어소통 면에서 이번 감독에 비해 훨씬 우월하고 연변팀의 전술전법에 대해서도 직간접 료해를 통해 비교적 익숙히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연변축구팬들의 기대는 엄청 높을거였다.

여기서 연변팀의 앞으로의 추세를 가상으로 간단하게 짚어볼 필요

/ 김태국기자

2024 ‘동윤컵’ 길림성청소년축구초청경기 룡정서

8월 13일, ‘2024 동윤컵·길림성청소년축구초청경기’가 룡정시해란강축구문화타운에서 개최되었다. 동윤공익기금회 리사장 공동매, 길림성내 상무위원회 당조 부서기이며 부주임이며 성자선희회 회장인 전금진, 길림성민정청 당조 서기이며 청장이며 성자선희회 상무부회장이인 소모문, 연변조선족자치주정부 부주장 정권 등이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초청경기는 동윤공익기금회와 길림성자선희회에서 주최하고 주민정국, 주자선희회에서 주관했으며 주체육국, 주교육국, 주축구협회를 협조했다. 이번 행사는 축구운동에 매체로 청소년들의 전면적 발전에서 스포츠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스포츠 경기를 통한 길림성 청소년들의 광범한 왕래와 융합을 촉진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공동매 리사장은 축사에서 체육이 강하면 중국이 강하고 국운이 흥하면 체육도 흥하게 된다고 표했다. 동윤공익기금회는 설립이래 줄곧 청소년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농

촌 진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시대적 주제 아래, ‘건강중국, 전면건강’이라는 시대적 배경 아래 적극적으로 각 지역의 협력 파트너들과 연합하여 농촌의 체육교육 발전, 인재 건설을 지원하는 등 여러 면에서 큰 노력을 기울여왔다. 공동매 리사장은 “축구 소년들이 축구에 대한 열정과 집착을 계속 유지하고 경기장에서 즐거움과 영예를 얻으며 인생의 길에서 건지, 단결, 용감함과 책임감을 배우기를 바란다. 또한 축구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초월하고 더욱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여 길림 축구사업의 왕성한 발전을 위해 힘을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초청경기에는 길림성내 은 16개 우수 학교축구팀의 200여명이 참가했다. 경기는 소학조, 초중조, 고중조로 나뉘어 소조 단순환점수제로 진행되었는데 3일간의 치열한 각축을 펼친 결과 연길시중양소학교팀이 소학조 1등을, 연길시 제5중학교팀이 초중조 1등을, 연변 1중팀이 고중조 1등을 차지했다.

/ 김파기자